관세청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6. 11. 6.(금) 13:00

관세청,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4개사와 업무협약 체결... 역직구 활성화 지원

- 민·관 협력으로 역직구를 통한 중소기업 제품 해외진출 적극 지원
- 해외 판매기업 발굴부터 맞춤형 교육, 수출통관·물류 애로해소, 수출동향·통계 공유까지

관세청은 11월 6일(금) 서울세관에서 CJ올리브영, 무신사, 알리바바, 쇼피코리아 등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4개사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관세청이 하반기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인 '모두의 수출' 정책의 일환으로, 민-관 협업을 통해 수출 가시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은 국내 기업과 해외 소비자를 연결하는 핵심 가교로서, 기업의 규모나 수출 경험에 관계없이 누구나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①시장진입 단계 ②수출 단계 ③사후관리 단계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자상거래 수출(역직구) 활성화 지원대책을 발표하였으며, 플랫폼 기업들은 글로벌 판매 과정에서 겪는 통관·물류 관련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통관 절차 간소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관세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고질적인 규제와 걸림돌을 빠르게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간담회에 이어 체결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자상거래 수출을 통한 해외판매 희망기업 발굴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한 교육·설명회 등 지원사업 협력
△ 전자상거래 수출 관련 통관·물류 애로사항 해소
△ 전자상거래 수출 동향·통계 등 관련 정보 공유
△ 그 밖에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력

이종욱 관세청장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수출은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핵심 수출 경로”라고 강조하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관 협력을 한층 강화해, 우리 기업들이 복잡한 절차 없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세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참고1. 국가별 전자상거래 수출 현황>

(단위: 천건, 백만불)

구 분	일본		미국		중국		대만		기타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4년	33,719	1,044	2,249	748	6,004	439	3,403	105	15,797	567	61,172	2,903
’25년	43,095	1,298	2,354	713	6,540	506	4,308	121	14,727	705	71,026	3,344
’26.9월	38,818	1,058	1,782	643	4,756	462	3,917	136	13,457	1,019	62,730	3,318

<참고2. 전자상거래 수출 상위 품목 현황>

(단위 : 백만 불)

순위	2024년			2025년			2026년 9월		
	품명	금액	비중(%)	품명	금액	비중(%)	품명	금액	비중(%)
1	향료·화장품	1,024	35.3	향료·화장품	1,409	42.2	향료·화장품	1,487	67.0
2	전기기기·CD	114	3.9	의류(편물제)	132	3.9	기타 조제 식료품	96	4.3
3	의류(편물제)	97	3.3	전기기기·CD	124	3.7	전기기기·CD	86	3.9
4	보일러·기계류	83	2.9	기타 조제 식료품	102	3.1	비누·계면활성제	70	3.2
5	기타 조제 식료품	78	2.7	의류(편물제외)	101	3.0	의류(편물제)	56	2.5

담당 부서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책임자	과 장	류승하	042-481-7840
		담당자	사무관	이현성	042-481-783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